

04

해외여행 시 말라리아 대국민 예방수칙

말라리아 발생 국가를 여행할 때에는 여행전부터 예방약을 복용하고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시기

예방법



여행 전

- 모기에 물리지 않는 회피 수단에 대해 숙지
- 모기에 물리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피수단(밝은색의 긴 옷, 기피제, 모기장 등)을 준비
- 각 국가별로 발생하는 말라리아 종류 및 약제내성 등이 다르므로 여행하는 국가에 따라 의사와 상담 후 적절한 예방약을 복용
-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여행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의료 시설에 대해 숙지



여행 중

- 모기가 활발히 활동하는 시간(해질녘~새벽시간)에는 가능한 외출을 자제
- 실내에서 잘 때 가급적 창문을 닫고, 적절한 방법으로 모기장을 설치하고 취침하며, 특히 야외에서 취침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모기장을 이용
- 외출 시에는 긴 팔, 긴 바지 등을 착용하고, 풀숲이나 물웅덩이 주변은 되도록 가지 않음
- 기피제 사용 시 일부 도움 받을 수 있음



여행 후

- 말라리아 예방약의 경우 종류에 따라 위험지역에서 벗어난 후에도 길게는 4주까지 복용하여야 하므로 정해진 기간 동안 적절한 복용법에 따라 복용
- 해외 위험지역 여행 후 모기매개 감염병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가까운 병·의원을 찾아 의사에게 여행력을 알리고 진료 받음
- 여행 후 최소 1개월 간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

감염병이 의심되거나 궁금할때는
국번없이 1339

05

말라리아 이것이 궁금하다!



말라리아는 어떻게 감염되나요?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된 모기에 물려 감염되며, 드물게는 수혈 등의 병원 감염이나 주사기 공동 사용에 의해 전파 되기도 합니다.



말라리아에 감염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말라리아에 감염되면 초기에는 권태감과 발열증상이 수일간 지속되며, 이후 오한(열림), 발열, 발한(땀흘림) 후 해열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두통이나 구역, 설사 등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말라리아 감염이 의심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말라리아 의심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병의원을 방문하여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말라리아 발생지역 여행 또는 거주 후에 말라리아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여행력을 알리고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해외에서 발생하는 말라리아의 경우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국내 말라리아 위험지역을 여행하는 경우에도 예방약 복용이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말라리아 위험지역을 방문한다고 하여 예방약 복용을 권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내 말라리아 위험지역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말라리아에 감염되면 격리를 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라리아는 모기매개 감염병으로 환자 격리 및 접촉자 격리 등의 조치는 필요하지 않지만, 수혈 등을 통한 혈액 전파 가능성이 있어 현혈금지가 필요합니다.

질병정보 궁금할 때
감염병이 의심될 때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말라리아 감염
이렇게 주의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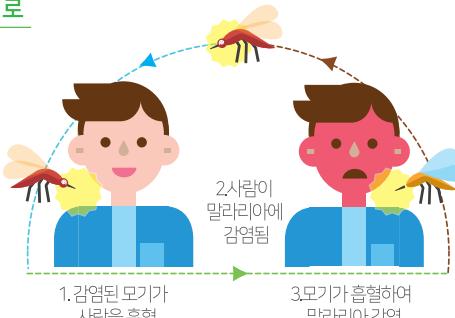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01 말라리아란?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된 모기에 물려서 감염되는 급성 열성질환으로 원충종류에 따라 총 5가지의 말라리아가 존재합니다.

전파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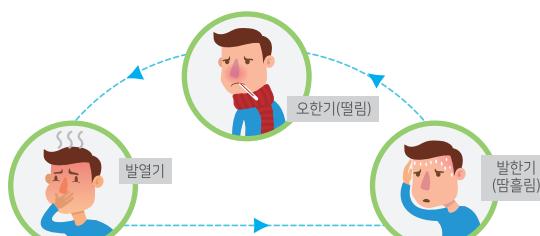


말라리아의 종류(잠복기)

열대열말라리아 (9-14일)	삼일열말라리아 단기(12-18일), 장기(6~12개월)	난형열말라리아 (12-18일)
사일열말라리아 (18-40일)		원숭이열말라리아 (11-12일)

주요증상

- 권태감과 서서히 증가하는 발열이 초기 수일간 지속
- 오한(떨림), 발열, 발한(땀흘림) 후 해열이 반복적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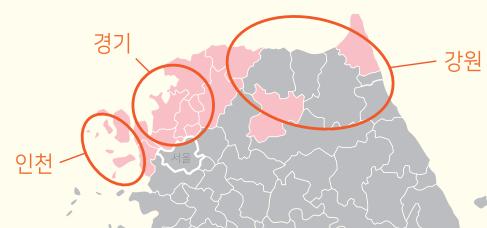
* 주요임상증상은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 증상을 의미하며, 보다 자세한 증상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참조

02 말라리아 발생현황

해외 유입 말라리아 발생 현황



국내 말라리아 위험지역



※ 위험지역은 전년도 말라리아 환자 발생 현황을 참고하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서 매년 선정 발표하고 있습니다. 위험지역은 크게 3가지(위험, 주의, 경계)로 분류되며 읍면동 단위로 매년 지정됩니다.

한국의 말라리아 발생현황



03 말라리아 감염 예방수칙



- 문과 창에 방충망을 설치하고, 방충망이 없을 시에는 반드시 모기장을 사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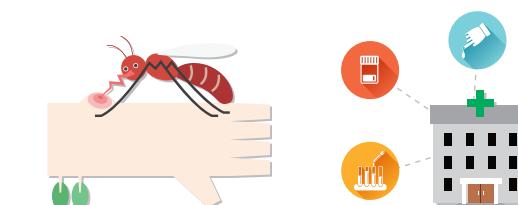
- 모기가 활발히 활동하는 저녁(해질녘)부터 새벽까지는 가능한 외출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외출 시에는 가능한 밝은 색의 옷으로 긴 소매의 상의와 긴 바지를 착용합니다.



- 기피제는 허용량을 초과하지 않게 노출된 피부나 옷에 얇게 바르고, 눈이나 입, 상처에는 사용을 금합니다.

말라리아 완치조사에 참여하세요.

말라리아는 원충이 사람의 혈액 내에 남아서 모기에 감염되어 전파되기 때문에 말라리아 환자 중 불충분한 치료로 혈액 내에 원충이 계속 남아있다가 매개모기가 감염되어 새로운 환자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치료 후에는 검사를 통해 혈액 내 원충이 없는지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 보건소와 함께 하세요!!